

새 술을 담은 새 부대를 찾아서

Sang-ho Ro, *Neo-Confucianism and Science in Korea: Humanity and Nature, 1706-1814*. Oxon: Routledge, 2021. 234 pp.

오승현†

한국 전통 과학사에 대한 학술서가 영어로 출판되는 경우는 우리 학계의 역사와 역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한국과학사학계의 선구자인 박성래와 고 전상운이 각각 자신의 한국어 저술을 영역하여 이후 출판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한국 전통과학기술사에 대한 통사였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노상호의 이 저작은 한국 전통과학사의 특정 주제에 대해 선명한 주장을 담아낸 보기 드문 영어 논저(monograph)라고 볼 수 있다.

영어로 출판되었다는 점은 이 책의 형식적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핵심 요소와 관련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18세기 이후 조선에서 인간 감각을 통해 수집된 경험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성리학의 윤리적·형이상학적 사유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를 인식론적 차원에서 추적한다(xii). 저자는 이런 흐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식론(epistemology)을 식별하는데, 이를 도덕적 관념이 핵심인 성리학적 리(理) 개념과 대비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로고스(logos)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여기에 “과학적 경험주의(scientific empiricism)”라는 명찰을 부여한다.

여기서 조선 후기에 등장한 인식론적 차원의 새로움을 “경험주의(empiricism)”, *logos* 등의 용어로 표현한 저자의 시도는 영어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에 유용하면서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할 만하다. 연구자들 혹은 시대별로 역사 서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근대 초 유럽의 과학혁명(Scientific Revolution)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가 수학의 부상과 경험주의적 인식론의 발달에 있다는 관점은 서양 과학사 연구의 오랜 전통을 통해 학문적인 합의가 종료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이런 개념에 익숙한 영어권 독자들이 비교적 낯선 조선 후기 사상사를 이해할 수 있

† 서울대학교, persival@gmail.com

도록 그들에게 발견적 도구(heuristics)를 제공한 셈이다.

저자는 조선 후기 경험주의적 인식론의 흐름이 이익(李瀾, 1681-1763)이 과거를 포기하고 재야의 “자유사상가(freethinker)”로 활동하기 시작한 170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xx, 120).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익은 이 시기부터 제도적인 전통 성리학의 테두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는 대신 서학(西學)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을 추구했다. 이익의 학문에서 저자가 주목한 요소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책에서 접하게 된 서양의 수학이었다. 이익은 서양 수학(기하학)의 정확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통적인 중국의 산술과 결합하여 지구의 둘레와 지름을 계산했다[測天]. 여기서 저자는 이익이 서양 수학의 방법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선형적·초월적인 자연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기독교적 인식론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익은 감각 경험을 통한 정확한 실증과 계산을 중요시하면서도 그것이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으면 주관적 편향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익이 보기에 경험을 다룰 적절한 수단은 기독교적 인식론에서 발견될 수 있었고 이는 성리학의 리와 조응할 수 있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감각 경험은 윤리적·형이상학적이성과의 조화 및 상호 작용으로 정제되어야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을 “성리학적 합리주의(Neo-Confucian rationalism)”라고 명명하면서, 이익, 홍대용(洪大容, 1731-1783) 등 18세기의 몇몇 학인들이 공유한 인식이라고 보았다(6, 117).

저자가 파악한 조선 후기 인식론의 변화 과정에서 성리학적 합리주의가 그 서막에 해당한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감각 경험에 더 방점을 둔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성리학적 리, 즉 도덕적 질서와 의미망 속에서 정체성이 부여된다고 믿어졌던 사물의 세계는 직접 경험에 의해 온전히 파악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어간 것이다. 명물학(名物學)으로 알려진 이 새로운 경향은 대표적으로 이규경(李圭景, 1788-미상)의 논설에서 확인된다. 이규경은 동물에 대한 경험적 정보가 성리학적 관념과 맞지 않아도 그것은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가 사냥감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행위는 윤리적인 측면과 별도로 관찰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32-33). 저자는 직접 경험에 의한 지식이 중국 고전에 근거를 둔 도덕적 차원과 별개로 탐구될 수 있다는 인식론적 지향에 대해 중세 유럽 스콜라 철학의 개념인 “이중 진리론(Double Truth)”¹⁾으로 설명한다.

명물학의 이중 진리론은 콜럼버스의 교환(Columbian Exchange) 이후 조선 사회에 새롭게 유입된 기물 혹은 생물상에 의해 더 강화되어 새로운 과학적 경험주의로 발돋움한다. 조선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범은 전통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자 신화적 숭배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범을 비교적 수월하게 사냥할 수 있는 조충이 유입되면서 범은 그 관념적·신비적 이미지보다는 사냥감이자 야생의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33-37). 범의 명물학은 인간과 범의 생태적 위계가 조충에 의해 변형되면서 촉발된 셈이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는 고구마 재배법의 실험이다. 18세기 일본에서 도입된 고구마는 그 농생태가 기존 작물과는 크게 달랐다. 꽃이 거의 피지 않는 고구마는 기존 작물과 같이 씨앗으로 파종할 수 없는 대신 어린 줄기 혹은 뿌리로 번식한다. 고구마의 특이한 생태를 접한 조선의 학인들은 농작물에 대한 고전적 지식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구마 재배법을 밝히기 위해 직접 경험에 의존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통제된 실험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강필리(姜必履, 1713- 1767)의 『감저보(甘藷譜)』¹는 그러한 실험의 대표적인 결과물이었다(58-61).

저자가 볼 때 감각 경험에 중점을 둔 명물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제된 환경에서의 조작적 실험은 조선 후기 과학적 경험주의의 핵심이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저자는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자산어보(茲山魚譜)』와 빙허각 이씨(憑虛閣李氏, 1759-1824)의 『규합총서(閨閣叢書)』에서 새로운 인식론의 또 다른 면모를 식별한다. 정약전은 흑산도라는 외딴 세계의 동물상 탐구를 통해 과학적 경험주의를 성리학적 합리주의의 지평 너머로 확장했다. 그는 흑산도의 낯선 해양 생물을 직접 해부하며 관찰할 때, 일차적인 관찰과 합리적 추론으로 파악 가능한 피상적인 속성 너머 숨겨진 유기체의 통일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저자는 정약전의 이러한 시도를 서양의 “낭만주의(romanticism)”적 자연관에 견주어 설명한다(77-78). 빙허각 이씨는 도교 전통과 관련된 물질 조작의 다양한 방법을 레시피(recipe)의 형태로 기록했다. 저자는 요리,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이러한 레시피를 통해 조선 후기 물질문화의 중요 행위자로 여성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을뿐더러 여기서 성리학적 리로 표상되는 합리주의

¹ 후기 스콜라 철학에서 나타난 진리관으로, 신앙의 진리와 이성적 진리를 구별하는 견해다. 이는 교부 철학과 초기 스콜라 철학에서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즉 신앙의 진리와 철학의 진리가 다르지 않다는 오랜 관점(One Truth)과 대비된다.

와는 결이 다른 물질 감응의 원리로서 정(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02-106). 이에 대해 저자가 앞선 논의들과 달리 대응되는 서양의 개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영어권 독자들은 근대 초 서양 연금술의 공감(sympathy) 및 그 개념이 이어진 18세기 화학에서의 화학적 친화력(chemical affinity)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저자가 근대 초 서양 과학사의 몇몇 개념을 통해 조선 후기 과학사를 이해할 때 영어권 독자가 아닌 한국의 연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유용성이 있을까? 한국의 독자들에게 조선 후기 사상의 중요 전환은 성리학과 구별되는 실학(實學)이라는 새로운 학풍의 등장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런 이해는 1930년대 조선학 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운동의 주요 논자들은 실학에서 근대 민족국가 수립의 토대가 될 민족 문화의 독자성, 주체성을 발견했고, 그것을 조선 후기 국가의 부와 민족의 번영을 지향한 학문으로 규정했다. 실학에 대한 이런 관점은 해방 후 식민사학을 극복하려는 역사학계의 시대적 소명과 만나 더 증폭되었고, 오늘날까지 적어도 박물관, 교과서, 다큐멘터리와 같은 공적·대중적 영역에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상식의 영역이 된 듯하다. 그러나 1970년대 무렵부터 학계에서는 실학이 성리학과 질적으로 다른 학문인지, 실학이 당시 학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한 개념이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새천년이 시작될 무렵부터는 학계의 연구자라면 ‘실학’이라는 개념/용어를 회피하거나 설령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쓰는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실학에 내재한 것으로 여겨진 근대 문명의 핵심 요소 중 ‘과학성’에 대해서는 한국과학사학계의 대표적 연구자들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²

이러한 학계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 책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실학에 대한 통속적 개념을 근대 초 서양 과학사 서술의 틀로 변용하여 되풀이한 것에 불과

² 지난 2016년 한림대에서 개최된 ‘한국실학학회 공동학술대회 “실학을 다시 생각하다”’에서는 20세기 한국사학계의 실학 서사에 대한 검토와 재정비가 모색되었다. 이 학회의 발표는 한영우 외,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17)로 출판되었다. 최근에는 실학 서사의 기원을 조선학 운동 이전 신채호의 주체적 민족사 인식 속 고유의 낭가사상, 즉 단군 이래 고유하고 주체적인 상무정신에서 찾은 연구도 제출되었다. 허태용, “성리학” 대 ‘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개”, 『한국사상학회』 67 (2021), 41-72. 한편, 한국과학사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의 실학에 대한 관점을 성찰적으로 분석한 대표적 연구로 임종태, “과학사 학계는 왜 실학을 저평가해 왔는가?”, 『한국실학연구』 36 (2018), 677-699를 들 수 있다.

하다고 평가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와 관련하여 조선 후기 학인들의 저작에서 근대 초 서양 과학의 중요한 요소를 찾고자 하는 작위적 시도라는 비판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세부적인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저자와 결이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자는 이런 비판보다는 이 책이 영어권 독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자들에게도 발견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그것은 이전 세대에 비교적 굳건해 보였던 실학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근래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학계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사실상 외면해 왔다는 성찰이 동반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근래 한국의 연구자들은 민족주의 역사 서술 전통의 자장 속에서 발달한 실학 서사의 통속성을 의식하며 그것과 거리두기에 몰두한 나머지 조선 후기 사상의 중요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 민족주의 사관의 낡은 틀을 벗고 일국사의 관점에 한정하지 않으면서도 근세 동아시아 문명사의 맥락에서 (조선) 중화주의와 같은 측면을 충분히 포괄한 새로운 실학 서사는 불가능할까?

대안적 관점의 실학 연구가 모색될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이 책의 여러 논의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방향이 감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고구마는 실험적 인식론뿐 아니라 일본의 농업 기술서도 적극 참조해야 할 필요성을 자극했다(58-59). 이런 자극은 적어도 생태적 조건이 중요한 물질적·기술적 지식의 측면에서 중화주의의 절대성을 약화하는 계기로 이어졌고, 이런 경향은 농업에 관심을 보였던 실학자들이 강조한 실용(實用)의 의제에 담겨있었을 것인데, 이 점은 바로 후대의 민족주의적 역사 서사를 구축한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주체적 측면으로 부각되었을 수 있다.

한편, 이 책의 미덕을 이런 관점에서 평가할 때, 그 연장선상에서 평자는 이 책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자 향후 많은 연구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조선 후기의 과학적 경험주의를 식별하면서 성호 이익 이후 개별 학인들의 사상에 주목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인식론을 사회정치적 의제와 연결시키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보았다. 저자가 보기에 그들은 자유사상가로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었지만, 현실사회의 개혁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119). 그러면서도 저자는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의 완고한 성리학적 교조주의가 현실적 기능부전에 빠지게 되면서 흥경래의 난, 동학 농민 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민란을 초래했다고 보았다(120). 그렇다면 새로운 인식

론을 표방한 학인들은 정말로 조선 사회의 병적 징후와 거리를 두고 고립된 채 대안적 지식을 추구했을까? 평자는 이들이 현실사회와 유리된 학인이었다는 관점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들이 현실의 관료 정치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조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더 깊이 있게 파악했고, 그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추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새로운 인식론은 자신들이 구상한 사회개혁 캠페인 속에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낡은 성리학적 교조주의와 세도정치 시기의 망국적 위기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위기는 실학자들의 새로운 인식론과 표리(表裏)를 이루는 개혁 프로그램이 실현되지 못한 결과일지도 모른다.³

그런데 그들이 꿈꾼 사회는 우리에게 익숙한 근대 사회가 아니라 18-19세기 동아시아 문명의 지형 속에서 조선의 학인으로서 구상할 수 있었던 세계였을 것이다. 그들의 꿈, 지식 탐구의 새로운 시도가 그 당시에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소멸된 것도 아니라면 이후의 역사에 어떤 흔적과 유산을 남겼을까? 그런 요소를 감지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통속적으로 한국의 근대화(modernization)를 외래의 기술과 자원 및 지식의 발빠른 도입에 의한 추격 전략(catch-up)의 성공으로만 생각하는 관점을 외부의 요소뿐 아니라 조선 후기의 그러한 유산이 서로 얹히고설키는 융합 및 토착화의 과정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의 아쉬운 점은 평자에게 이런 문제의식과 연구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평자에게 이 책에서 보여주는 조선 후기 새로움에 대한 요소들, 즉 새로운 작물, 기물, 레시피 작성, 감응의 인간-비인간 네트워크 등은 저자가 담백하게 빚어낸 새 술처럼 보인다. 이제 이것을 담은 새 부대가 만들어질 때다.

3 여기서 실학에 대해 소수 재야학자의 예외적 학문으로 평가해 온 관점을 비판한 유봉학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봉학은 실학을 18세기 이후 경향(京鄕) 분리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엘리트로 부상한 경화사족의 학문적, 사회개혁적 지향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연구를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제출했고, 이 연구 성과는 오늘날 실학 이해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유봉학, “서유구의 학문과 농업정책론”, 『奎章閣』 9 (1986), 49-84;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풍석 서유구의 학문과 사상”, 『역사문화논총』 6 (2010), 129-158; 『실학과 진경문화』 (신구문화사, 2013)].